



# 결과 바라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정관 스님의 가르침** 평균 수명 백세시대가 왔습니다. 평균 백세시대를 맞아서 복지(福祉) 백 살이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평균 수명 백세시대가 고통의 백 살, 천덕꾸러기 백 살이 안 되고 건강의 백 살, 복지 백 살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신심(信心)이 있어야 합니다. 신심이 없으면 절대로 복지 백 살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로 하는 복지는 다함이 있지만 신심의 복지는 무한이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심의 복지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자기 마음입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불교는 억만년이 흘러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난자지(冷暖自知)'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불성인데 불성은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분 차가운 줄 더우면 더운 줄 스스로 압니다. 아는(知)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따뜻한 것을 언제부터 압니까? 연어나 문자는 익히고 배워서 알지만 차고 따뜻한 것을 아는 이것은 태중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태중 이전에 아는, 알지(知)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을 본래지(本來知)라 하지요.

찬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찬 것은 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부를 해봐도 '차다' 하는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안 믿고, 모른다고 안 믿으면 신(信)이 없습니다. 신이 없으면 설 땅이 없는 거와 같아요. 태중 이전의 이 알지(知)를 안 믿으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찍어지는 육신밖에 없게 돼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 의문이 붙어 의문을 가지고 지극히 참구하다보면 답 나와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마음, 마음이라고 이름붙인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짐을 못 찍어요. 짐을 찍을 수 있으면 쇠가모니부처님이 벌써 찍었겠지만 쇠가모니부처님도 못찍었는데 누가 감히 짐을 찍어요? 짐을 못 찍으니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제 알 지(知)가 있다고 알았으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탐관자가 되고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놔 버려야 합니다. 경을 읽어 아는 것으로는 자기 안식이 안 됩니다. 지식을 놓으려면 참선공부를 안하면 안 됩니다. 참구하고 참구하는 것으로 본래 알 지(知), 즉 본래지(本來知)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그 알 지(知)를 증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염불이라고 하고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송화두(염불)와, 간화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화선과 송화두 즉, 염불의 차이점은 화두는 벽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면 염불은 벽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없어요 벽을 뚫고 있는 겁니다. 뚫고 있으니 다음에 뚫을 준비를 갖춘 셈이지요.

그리고 화두의 생명은 의문이 붙어야 합니다. 의문이 붙어 그 의문을 늘 참구해 들어가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의문이 없는 공부는 향상이 없어요. 마치 열에 자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감각하고 힘이 들어요. 의문이 안 나는데 억지로 앉아 있으면 상기가 되고 지겹고 공부에 진전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송화두를 하라고 권합니다. 반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서 어느 때는 스스로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틀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 지극정성, 분발심, 이것만이 자기 구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송화두든 간화선이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결과라는 것을 알고 다른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결과부터 먼저 바라니 결과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실패자가 돼요. 흔히 사람들이 여러 공부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고 있음에 대한 집중과 즐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는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점검사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점검사만 있어서는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관 스님은 '백세시대'를 맞아 무한한 신심을 바탕으로 '복지 백 살'을 일구려고 거듭 거듭 강조한다.

점검사를 안 하면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진국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이바사가 5대 내려가고 국장사가 6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이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이바지 맛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전 신문에서 경북공 보수를 끝내고 기별식을 하는데 그 보수를 맡은 도목수를 말단에 앉히고 꽃다발 하나도 대접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봤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고 못하고 뒤떨어진 생각 수준입니다. 장관이 열명 있어도 도목수 그분이 없으면 경북공 보수 못하잖아요? 그러면 장관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 평등하고 귀중합니다.

내가 범어사에 있을때 청소차가 늦으면 "오늘 지정보살님이 왜 이리 늦냐?" 그랬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늦게 와도 도량에 냄새가 나요. 그분들이 없으면 거기가 더러워서 못 다녀요. 그러니 그 분들이야말로 중생을 위해 나무는 보살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긍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고, 멋진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말하고 듣고 보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촉발시켜 의문을 참구하십시오. 의문이 붙어서 의문을 가지고 참구하고 참구하다 보면 어느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춤도 절도 나오고 결정신자가 되는 겁니다. 답이 만나오면 결정신자가 아니에요. 그저 믿음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모름에 대해서 알려고 추구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해 보십시오. 그 몰두에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서양의 문화는 말하고 듣는 이것에 대한 참구가 없으니가 자꾸 바깥으로만 마음을 쏟을 데를 찾으니까 더욱 더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가지고는 안식이 없어요. 참구하고 참구하다 답이 나오면 안식자(安息者)가 되고, 그 안식은 시방세계에 가득합니다.

정려=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7>



### 그 할머니, 사람 잡네!

한 할머니가 커다란 나무 밑에 잠시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에 눈을 뜬 할머니는 기절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할머니 몸의 몇 배나 되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할머니를 습격하려고 앞 발 두 개를 번쩍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눈을 떴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빠르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했지요. 하지만 곰도 워낙 날랜 짐승이라 만만치 않았습다.

할머니와 곰.

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빙빙 돌며 쫓고 쫓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빙빙 돌다가 곰이 한쪽 발을 나무에 걸고서 한쪽 발로 할머니를 후려치려고 하는 순간 할머니는 한 손으로 아주 재빨리 나무를 짚은 곰의 앞발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곰이 당황해하는 사이에 다른 쪽 앞발 하나마저 얼른 붙잡아서 나무에 대고 눌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나무를 사이에 두고 곰의 앞 발 두 개를 할머니가 두 손으로 꼭 누르고 있는 광경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 한 세상 그럭저럭 잘 살아가게 하는 교훈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종교가나 이론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는 듯이 거침없이 사람들을 향해 쏟아 붓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무책임한 종교가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리 번드러운 말을 들어도 '진짜 그런가?'라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그저 솔깃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대체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자식이 잘 된다', '병이 낫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더 이상 알기 지리지 않고 털려 듭니다. 이런 무모한 사람들 중에는 학력과 재산의 어느 정도 가진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곰 고기를 나누어줄테니 이 곰 좀 붙잡고 있으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 근육을 치른 청년이 바

## 귀가 얇아 무책임한 종교가 말에 혹하십니까 당한 후에 원망 말고 "사실일까" 한번 더 생각은

은 곰과 못하고 있지만 사납고 힘센 곰이 언제 할머니를 다시 공격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남자가 그 나무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피를 내어 그를 붙잡습니다.

"이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구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 그 사이에 내 얼른 이 녀석을 잡을 테니 우리 둘이서 고기를 나눠 먹읍시다."

청년은 곰을 잡아서 나누어주겠다는 말에 얼른 할머니 대신 곰의 앞발을 자기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살았다 하며 걸음아 날 달려라 삼십육계 즐행랑을 쳤습니다.

그 청년이 곰에게 어떻게 피였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청년을 두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바보 멍청이"라며 비웃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백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곰 이야기를 읽을 때는 허리가 썩이도록 웃었습니다. 여러차례 청년보다는 할머니의 재치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이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읽고서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 이런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과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쓴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이 다 알차고 유익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들 중에는 자기가 기거한 절이 효험이 있다가 나, 꼭 어떤 특정한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야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이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 책의 저자인 스님을 천견하려 절에 갔거나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가와 정성을 더 쏟으라느니, 조상을 달래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슬쩍 건네거나,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지금 내 말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 특별히 당신에게만 들려준다'며 은근히 설득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전부가 사나운 곰을 청년에게 남기고 도망친 할머니와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근육을 치르고 비웃음을 당한 자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당하고 나서 할머니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 있었습니까? 세상은 그런 청년을 순수하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비웃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미명(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삼사순례 및 방생. 기도영험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해사**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귀머고, 눈멀고, 다리병신이거나, 굶주거나, 미쳤거나 여러가지 신병에 걸렸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명호를 듣게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소원될 이루어지는 약사여래와 불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의시고 소원이루시길 바랍니다.

**불사안내**

- ◆와 불 : 1구좌 100만원
- ◆몸속부처님원불 : 1000만원
- ◆후불명화 : 300만원 (몸속부처님은 육불로 모심)
- ◆협사불 : 각 700만원
- ◆천 불 : 한부처님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강원도 양양군 손안면 학포리 156번지 범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밝고 수명이 길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안전지용 초 방생, 탐불이 행사용 청사조명 및 초롱 길에대

**연 등 (정품)**

법당용(문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불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